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7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FPI, 필리핀 관세청의 디지털화가 '가장 부패한' 기관 개혁과 밀수 억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 —*page 1*
- 에너지부(DOE): 재생에너지 전면 외국인 소유 허용으로 필리핀 전력 공급 20GW 증가 — *page 1-2*
- PSE 대표, 사외이사 임기 제한안에 반대 — *page 2-3*
- 필리핀, EU·UAE와의 무역 협정 타결 임박 — *page 3-4*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32% 급증 — *page 4*
- 상호 관세 협상, 내년 타결 전망 — *page 5*
- 성장 둔화 위험 속 추가 금리 인하 전망 — *page 5-6*
- 한국, 미국과 다양한 외환스와프 방안 논의 중이라고 장관 밝혀 — *page 6*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 KCCP Christmas Party — *page 7*

FPI, 필리핀 관세청의 디지털화가 '가장 부패한' 기관 개혁과 밀수 억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

October 13, 2025 | Justin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BW FILE PHOTO

필리핀산업연맹(FPI)은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의 디지털화가 현재 '가장 부패한 기관 중 하나'라는 평판을 '가장 개혁된 기관 중 하나'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PI 명예회장 예수스 L. 아란사(Jesus L. Arranza)는 아리엘 F. 네포무세노(Ariel F. Nepomuceno) 관세청장의 개혁 정책이 BoC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란사 회장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랜 기간 밀수와 불법 거래의 피해를 입어온 FPI 회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해왔다"며 "진정한 개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가장 먼저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투자환경 보고서(Annual Investment Climate Report)'를 인용하며, 미국 기업인들이 관세청 내 편의 제공 수수료(facilitation fees)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아란사 회장은 관세 절차의 디지털화가 수입업자와 관세청 직원 간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PI는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추진될 현대화 프로젝트는 수입 서류 처리, 검사 추적, 물품 가치 평가 과정을 자동화하여 담합, 뇌물, 기술적 밀수(technical smuggling)의 여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포무세노 관세청장은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대행업체(customs brokerage companies)와 사업적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FPI는 "모든 BoC 직원은 통관 대행업에 종사하는 4촌 이내 친척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한 공증 진술서(verified 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세청(BoC)은 또한 **정보국(Intelligence Group)과 집행국(Enforcement Group)**이 수행할 예정이던 모든 단속 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7월 2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위임장(Letters of Authority)과 임무 명령서(Mission Orders)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0/13/704995/fpi-hopes-boc-digitalization-can-reform-most-corrupt-agency-curb-smuggling/

에너지부(DOE): 재생에너지 전면 외국인 소유 허용으로 필리핀 전력 공급 20GW 증가

October 14, 2025 | Lisbet K. Esmael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정부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RE) 분야를 전면적으로 외국인에게 개방한 결정으로 인해, 약 20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전력 설비 용량이 설치됐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에너지부(DOE) 로웨나 크리스티나 게바라 차관(Rowena Cristina Guevara)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 달성에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2]*

에너지부(DOE): 재생에너지 전면 외국인 소유 허용으로 필리핀 전력 공급 20GW 증가

[Cont. from page 1]

현재 필리핀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한다.

게바라 차관은 2022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면 외국인 소유를 허용한 이후, 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까지 총 20기가와트(GW) 규모의 75개 프로젝트가 전면 외국인 소유 기업에 승인됐다"고 지난 **'제2회 필리핀 미래 에너지 및 전력망 정상회의(Philippines Future Energy and Grid Summit 2025)'**에서 밝혔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게바라 차관은 "따라서 우리는 재생에너지(RE)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분야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방안 중 하나는 '그린에너지 입찰 프로그램(Green Energy Auction Program, GEAP)'으로, 입찰에 성공한 전력 사업자에게 고정 요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녀는 "GEAP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으며, 비용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4차례의 입찰 라운드를 계획하고 있다.

3차 입찰에서는 목표치인 4,650메가와트(MW)를 넘어서는 7,530.89MW 규모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6,680MW가 낙찰되었다.

한편, 제4차 그린에너지 입찰(GEA-4)에서는 필리핀 최초의 통합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프로젝트가 출범했으며, 9,400MW 이상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또한 올해 안에 두 차례의 추가 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정식 해상풍력(offshore fixed-bottom wind)과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에너지화(WTE)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 입찰

지난주 에너지부(DOE)는 메트로 마닐라와 고도 도시화 지역(HUCs)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폐기물-에너지(WTE)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그린에너지 입찰(Special Green Energy Auction)'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7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폐기물관리위원회(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Commission)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는 연간 약 612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는 약 335메가와트(MW) 규모의 기저부하 전력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52415/doe-full-re-foreign-ownership-added-20-gw-to-ph-power-supply

PSE 대표, 사외이사 임기 제한안에 반대

October 14, 2025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Ramon Monzon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증권거래소(PSE)**의 **라몬 몬손(Ramon Monzon)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사외이사 임기 9년 제한 및 신분 보장 조항을 담은 **행정지침안(memorandum circular)**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몬손 대표는 《더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프랜시스 림(Francis Lim) 위원장에게 나는 그 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왜 기업이 사외이사를 3년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가? 사외이사는 매년 선출되는데, 만약 그 이사의 성과가 좋지 않다면? 혹은 더 나은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몬손 대표는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9년 임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다만 림 위원장은 매우 열린 태도를 보였다. 10월 15일까지 공청회 기간이 있으니, 그 의견을 공식 의견서에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SEC는 지난달 말 행정지침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임기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임기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필리핀 개정 회사법(Republic Act 11232, Revised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이 규정한 **국제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Cont. page 3]*

PSE 대표, 사외이사 임기 제한안에 반대

[Cont. from page 2]

초안으로 제시된 행정지침안(draft memorandum circular)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고정된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임기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사외이사는 최대 누적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최대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는 동일한 회사에서 다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림 위원장은 제안된 **3년 임기 보장(security of tenure)**의 목적은 사외이사를 진정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림 위원장은 "즉, 사외이사는 선출되면 1년이 아닌 3년 임기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SEC가 예외 허용 제도(exemptive reliefs)를 폐지하고 9년 임기 제한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사외이사는 최대 누적 9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비사외이사(non-independent director)**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9년을 이미 채운 사외이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이사회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직 초안 상태인 이번 행정지침안은 공청회(public comment)를 거치는 중이며, 림 위원장은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SEC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SM 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 Corp.)와 몬드 니신(Monde Nissin Corp.)의 사외이사인 라몬 로페스(Ramon Lopez)는 제안된 사외이사 3년 고정 임기가 논리적이며 공정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사외이사의 9년 임기 제한은 기업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이미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SEC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게 의무적인 임기 제한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필리핀증권거래소(PSE)의 중개인 이사(broker directors)에 대해서도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림 위원장은 《더 스타》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이 제안은 사외이사 및 비중개인(non-broker) 이사에 적용되는 기존 임기 제한과 유사한 제도를 중개인 이사에게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중개인에게 PSE 이사회에서 근무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몬손 대표는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면, 모든 이사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 사외이사에게 임기 제한이 있다면, 중개인 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14/2479644/pse-chief-nixes-proposed-term-limits-independent-directors

필리핀, EU·UAE와의 무역 협정 타결 임박

October 13, 2025 | Adrian H. Halili | BusinessWorld

REUTERS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월요일, 유럽연합(EU)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각각 내년과 다음 달에 최종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 열린 **상원 예산 청문회(Senate budget hearing)**에서 크리스티나 A. 로케(Cristina A. Roque) 통상산업부 장관은 필리핀이 아직 EU와의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앨런 B. 젭티(Allan B.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도 의원들에게 "현재 우리는 텍스트 기반 협상(text-based negotiations) 단계에 있으며, 이는 규정과 원칙(disciplines)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에너지 및 원자재,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함하는 필리핀의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필리핀과 EU 간 교역 규모는 155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했으며, EU는 필리핀의 전체 교역에서 7.7%를 차지하는 다섯 번째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Cont. page 4]*

필리핀, EU·UAE와의 무역 협정 타결 임박

[Cont. from page 3]

필리핀의 대EU 수출액은 81억 달러, EU로부터의 수입액은 75억 달러에 달했다.

크리스티나 로케(Cristina Roque) 통상산업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11월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케 장관은 상원 위원회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11월 말, 구체적으로 11월 24일경에 서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주요 대UAE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 장비, 식품, 철강, 광물 연료, 기계류 등이 포함된다.

앨런 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품목이 농산물, 공산품, 기계, 전자제품 등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UAE는 2022년 2월 CEPA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필리핀이 중동 국가와 맺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이번 CEPA는 두바이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UAE는 필리핀의 제18위 교역 파트너이자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중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0/13/704999/phl-close-to-concluding-trade-deals-with-eu-uae/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32% 급증

October 14, 2025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의 부진한 판매를 상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약 12조 1천억 원(약 85억 달러)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실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금융 데이터 업체 집계 기준으로 이 수치는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실적 호조는 서버 및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NAND와 DRAM 메모리의 가격 상승 및 출하량 증가가 이익 개선을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South Korean tech giant Samsung Electronics has built factories in Vietnam for years, with nearly half its high-end mobile phones now put together in the southeast Asian country. It has signaled higher profit in the third quarter. (Photo by Nhac NGUYEN / AFP)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황민수 연구이사(MS Hwang)는 AFP와의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메모리 시장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며

"AI 관련 서버 투자 확대로 범용 DRAM과 NAND의 가격 및 판매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픈AI 및 테슬라 협력

이달 초 삼성전자는 오픈AI(OpenAI)와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위해 반도체 칩과 기타 장비를 공급하는 예비 계약(preliminary deal)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Taylor)에 건설 중인 신규 반도체 공장을 통해 테슬라(Tesla)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는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86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기순이익(net income) 관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닐 샤(Neil Shah) 부사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문에서도 강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품 믹스 개선과 함께 최신 폴더블폰, 특히 갤럭시 Z 폴드7(Galaxy Z Fold7)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최종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14일 서울 증시 장 초반 2.79% 상승세를 기록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52497/samsung-flags-32-jump-in-q3-operating-profit

상호 관세 협상, 내년 타결 전망

October 13,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SIANTERMINALS.COM.PH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미국과 진행 중인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협상이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앨런 B. 젭티(Alan B. Gepty) 무역차관은 "미국이 현재 최소 69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2025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리핀 측에서는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길 원하고 있지만, 약 3주 전 미국 측과 가진 마지막 협상에서 미국은 여러 나라와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협상 타결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중 언제쯤인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내년에 타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약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등 필리핀이 관세 면제를 추진 중인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젭티 차관은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조율 중이라서 관련 품목 목록을 제출했다"며, 해당 목록에는 자동차 부품과 의류 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미국이 모든 반도체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필리핀은 반도체를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전략은 시장 다변화다. 그래서 현재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0/13/704992/reciprocal-tariff-talks-seen-concluding-next-year/

성장 둔화 위험 속 추가 금리 인하 전망

October 14,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BMI는 10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지난주 예상 밖의 25bp(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한층 비둘기파적인 완화 기조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BMI는 "BSP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안정적이고 국내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BMI는 "BSP가 2025년 12월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조정하고, 2026년에는 추가로 50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 그룹 산하 **BMI 컨트리 리스크 앤드 인더스트리 리서치(BMI)**는 필리핀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5~6.5%를 밑도는 5.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BMI는 중앙은행(BSP)이 경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진행 중인 부패 스캔들의 잠재적 영향까지 언급한 점은 "중앙은행이 점차 우리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필리핀 경제 둔화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9월 30일 필리핀증권거래소(PSE) 지수가 약 6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으며, 상품 수출 증가율도 7월 17.6%에서 8월 4.6%로 급격히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BMI는 이어 2026년 GDP 성장률 역시 5.2%로 추가 하락해 정부 목표치(6.0~7.0%)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둔화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관세 인상, 부패 우려로 인한 기업 신뢰 하락, 그리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Cont. page 6]

성장 둔화 위험 속 추가 금리 인하 전망

[Cont. from page 5]

BMI는 "내년 50bp(0.5%포인트) 규모의 금리 인하는 팬데믹 이전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가 2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소 미약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이미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현 통화 완화 사이클에서 총 175bp(1.7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BMI는 또 "보다 점진적인 완화 속도는 중앙은행이 이전 금리 인하의 효과를 평가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BSP의 목표 범위인 2.0~4.0%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3.5%로 중앙은행의 전망치인 3.1%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약세를 보이는 페소화(지난주 목요일 달러당 58.44페소로 약 1% 하락)가 12월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BMI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9월 말 기준 1,088억 500만 달러의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통화를 방어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BMI는 또 "12월에 25bp(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페소화에 대한 추가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연말 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달 말 25bp 인하가 예상됨)와의 금리 차가 다시 50bp로 좁혀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MI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bp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 요인이 "하방(더 많은 인하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분석했다.

"홍수 통제 사업 외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들로까지 부패 스캔들이 확산될 경우,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격차(output gap)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BMI는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BSP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 2026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10/14/business/top-business/more-rate-cuts-seen-amid-risks-to-growth/2199735

한국, 미국과 다양한 외환스와프 방안 논의 중이라고 장관 밝혀

October | By Reuters | Malaya Business Insight

한국은 미국과 양자 외환스와프(FX swap) 설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이는 미국의 투자 계획이 국내 통화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조치의 일환이다.

구 장관은 월요일 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무제한 스와프가 아니라 조건부 스와프 라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연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약 200억 달러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는 범위 내이며, 7월에 체결된 초기 합의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3,500억 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되며, 직접 투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금액을 "선불(upfront)"로 납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 장관은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워싱턴이 한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별도의 회의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별도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서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일부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제안에는 통화스와프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김용범 청와대 비서관은 이달 초 언급했다.

서울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world-business/south-korea-in-talks-with-us-on-various-ways-to-set-up-fx-swap-minister-says/

UPCOMING EVENT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할 테이블 후원사(Table Sponsor) 또는 경품 후원사(Raffle Sponsor)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말 행사에는 **한국과 필리핀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Chi / Ms. Sang

Tel No. +632-8885-7342

Mobile: 0917-801-5920 | 0915-888-7296 (both available in Viber & Kakaotalk)

email info@kccp.ph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